

강기정·신정훈 단일화... '합종연횡' 요동치는 경선판

6·3 지방선거 D-65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늘 발표
5자→4자 구도 전환... 치열한 생존 경쟁
김영록, 이병훈 지지 이끌어내 勢 확장
주철현·민형배도 동부권 정책연대 선언
과반 득표 힘든 구조 결선 진출자 촉각
결선투표 성사 시 후보 연대 정점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후보 간 단일화와 연대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합종연횡'으로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특히 당초 5파전으로 진행됐던 본경선 경쟁이 강기정·신정훈 후보 간 단일화를 통해 4파전으로 압축되면서, 기존 김영록·민형배 후보의 2강 구도가 단일 후보까지 가세한 3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본경선을 앞두고 결선투표 진출을 위한 피 말리는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지난 27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와 신 의원은 이날 서부권 정책배심원 토론 종료 직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단일화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만개한 벚꽃. 완연한 봄을 알리는 벚꽃이 만개한 29일 오전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를 찾은 시민들이 벚꽃을 배경 삼아 추억을 남기고 있다. 운천저수지는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통행이 제한됐다(지난달 전면 개방됐다). /조영권 기자

이러한 움직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름만 바뀌는 변화가 아니다"며 "일자리와 균형 성장, 지역과 도시와 농촌이 촘촘히 연결되는 광주 전남, 자기 힘으로 성장하는 광주 전남을 만들기 위한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단일화 방식은 각 캠프가 각각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해 안심번호 기반 자동응답방식(ARS)으로 개별 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합산, 평균 지지율이 높은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하기로 했다.

조사 표본은 업체별로 광주 800명, 전남 800명 등 총 1천600명 규모다.

단일화 여론조사는 28~29일 이틀간 진행됐다.

두 후보는 3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상호 비방은 하지 않는 대신 지지자 확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최대한 허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 예비후보와 신 의원은 "공정한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정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며 "단일화 이후에는 하나의 힘으로 민주당 경선 승리는 물론 본선 승리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단일화는 통합의 정신을 충분히 살리고 김대중 정신을 받들기 위한 의미"라

며 "열심히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힘을 합칠 것은 잘 합쳐보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통합은 기본 마음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앞으로 4년은 지역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가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실현해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장점과 함께해온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전남권 국립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한 이견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조율하고

검증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 간 단일화가 현실화될 경우 기존 5자 구도가 4자 구도로 재편되며 본경선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비경선 이후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잇따라며 세 걸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는 지난 24일 경선 후보였던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며 세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김 후보와의 원팀 구성에 합의하고 김 후보 캠프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민형배·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도 지난 26일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부권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연대에 나서는 등 각 진영의 걸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 경선 구도를 감안할 때 어느 후보도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인 만큼 결선투표 진출자 최종 2인에 누가 이름을 올릴 지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본경선 이후 후보 간 연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정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본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1·2위 후보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선투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경우의 수'가 다양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은 오는 4월3~4일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안심번호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실시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4월12~14일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동구 임택·서구 김이강·광산구 박병규

민주당, 동·서·광산구청장 후보 확정
남구 2명·북구 4명 내일부터 본경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5개 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동구·서구·광산구청장 후보를 확정하고 남구·북구청장 후보는 본경선을 통해 결정한다.

29일 민주당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동구·서구·광산구청장 후보가 확정됐다.

3파전으로 치러진 동구 경선에서는 임택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해 노희용·진선기 후보를 꺾고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광산구 경선에서는 박병규·박수기·차승세 후보가 나선 가운데 박병규 후보가 과반 득표로 1위를 기록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김이강 후보와 조승환 후보 간 맞대결을 펼친 서구 경선에서는 김이강 후보가 승리하며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3곳 모두 현직 구청장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현직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구와 북구는 예비경선을 통해 본경선 진출자를 가렸다. 남구 경선에서는 김병내 후보와 황경아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고, 북구 경선에서는 김동찬·문상필·신수정·정다은·조호권 후보가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됐다.

당초 5명이 나설 예정이었던 북구 본경선은 2일 조호권 후보의 사퇴로 4파전으로 압축됐다. 조 후보는 신수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북구의 경우 다자구도인 만큼 표 분산 가능성이 커 결선투표 가능성이 점쳐진다.

남구·북구 본경선은 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 간 치러진다.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시민 50%)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변은진 기자

민주당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인터뷰... 신정훈 ▶5면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 내달 6일 돌입

민주당, 22개 시·군 경선 후보 확정
11개 시·군 내달 6일 '국민참여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모두 확정하고 4월6일부터 경선에 돌입한다.

전남도당은 지난 27일 제9회 동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 나설 경선 후보를 확정했던 전남도당은 이날 4개 지역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곡성군수 경선 후보는 강대광·강덕구·조상래 등 3명이며, 구례군수 경선 후보는 김순호·박인환·신동수·장길선·홍봉만 등 5명이다.

영광군수 경선 후보에는 김해영·양재희·이근철·이동권·장기소·장세일 등 6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보성군수 경선 후보로는 김철우·선형수·임영수 등 3명을 확정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전남도당은 또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어 목포·여수·광양·나주·담양·장흥·강진·완도·진도·영암·무안 등 11개 시·군을 경선 등록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11개 지역은 오는 4월6~7일 이를 경선을 진행한다.

전남도당은 나머지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사고 났을 때 바로 가드레일 밖으로

2차 사고 방지하기 위해 **비트박스** 꼭 기억하세요

비상등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

ex 한국도로공사